

10남매 웃음 가득 '행복 하우스'... "아이들은 하늘이 준 선물"

영광 10남매 다둥이네 김용희·최난희씨 부부의 새해 희망가

새해를 앞두고 지난 26일 찾아간 영광 다둥이네집은 '웃음 폭탄'이 난무하는 전성터 같았다.

이날 찾아간 다둥이네집은 사골마늘이 라 손발이 얼 정도로 추웠다. 하지만 마을 한 가운데에 위치한 다둥이네 컨테이너 가 건물은 김용희(45)·최난희(37)씨 부부, 그리고 이들이 낳은 십 남매가 발산하는 온기로 후끈했다.

영광군 군서면(군·郡) 지원을 받아 컨테이너로 지은 집은 열두 명의 식구가 모여 살기엔 턱없이 비좁고 부족한 게 많았지만, 가족의 얼굴에서 구김살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아이들은 "와~ 손님이다"고 소리 치며 기자의 양팔과 다리에 매달렸다. 아이들의 얼굴에는 낯설음이나 두려움 대신 반가움과 호기심이 가득했다. 반가운 마음에 터져나온 아이들의 웃음과 재잘거림에 집 안이 들쭉거릴 정도였다.

부부는 요즘 보기 드물게(?) 십 남매를 뒀다. 24년 전 결혼한 이후 이듬해 낳은 첫째 딸 하나(23)양을 시작으로 거의 2년마다 자식을 뒀 지난해 7월 얻은 막내 민걸(1)까지 오남 오녀를 낳았다.

방 셋에 화장실 한 개가 딸린 20평(66㎡)짜리 조그만 집은 모두가 잠든 밤을 제외하곤 아침부터 전쟁터다. 등교 준비와 출근 준비를 하는 아침에는 정신이 나갈

20평 집에서 12명 오순도순 넉넉지않은 생활형편이지만 아이들 커가는 모습 매일 행복 다음엔 꼭 쌍둥이 낳고 싶어

지경이다. 움직이는 사람은 많은데 화장실 1개에 실내 공간이 좁기 때문이다. 남매들 나이가 어려 가끔 불평불만이 나오기도 하지만 부부애가 남다른 부모를 보고 자란 탓인지 집안에서는 쯤체 큰소리가 나오지 않는다.

아빠 김씨는 "아침마다 화장실을 먼저 사용하려는 가족들 간 눈치싸움이 치열하다"며 "그나마 첫째와 셋째가 취업해 독립 하면서 조금 나아졌다"고 웃음 지었다.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집 한켠에 있던 세탁기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돌기 시작한다. 한 눈에 봐도 구입한지 오래돼 보이는 세탁기는 당장 작동을 멈출 것만 같았다. 엄마 최씨는 "해도 해도 빨랫감이 줄지 않아요. 애들이 원래 많아서요. 세탁기가 고생이죠 뭐"라며 애먼 세탁기를 걱정한다.

남들은 한 달에 쌀 한포대(20kg)의 절반도 먹지 못한다는 데 다둥이네는 두 포대도 부족하다. 자녀에게 번듯한 옷과 장난감을 쥐여준 적도 거의 없었다는 말을

할 때는 부부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부부의 고민도 바로 여기서 시작했다. 아이들이 커갈수록 자기만의 공간을 가지고 싶어하는데 빠듯한 살림은 어렵었기 때문이다. 여러 곳에서 다양한 도움을 주고 싶었지만 아이들이 커가면서 식비와 의류비 등 기본적인 생활비를 감당하기 힘든 형편이다. 옆집에 달친 격으로 그동안 농사일을 하던 김씨가 최근 건강악화로 일을 놓으면서 살림이 더욱 어려워졌다.

넉넉하지 않은 환경에도 십 남매의 표정은 밝지만 하다. 다섯째와 여섯째인 초등생 민준이와 민혁이는 유튜브의 꿈을 키우고 있다고 당차게 밝혔고, 나머지 자녀들도 어서 커서 효도하고 싶다는 바람을 드러냈다. 고단한 삶에도 부부의 얼굴이 환한 이유다.

부부는 "생활 형편이 넉넉지 않아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모두 들어줄 수 없어서 항상 미안하다"며 "하지만 우리집이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어렵게 꾸려온 집안 지낸 시간이 많았던 최씨는 결혼 초기 남편과 "자녀를 많이 낳자"고 약속했다. 하늘이 준 선물이라고 여기고 아이를 낳다 보니 어느덧 열명이 됐다.

한때 많은 자식 탓에 주변의 시선이 곱지 않아 마음의 상처를 입을 때도 있었다. 하지만 집에서 들리는 아이들의 웃음에 이내 힘을 되찾았다. 김씨는 "아이들이 인생의 전부"라며 "새해에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빨리 기운을 되찾아야겠다. 몸이 나



영광군 군서면의 '십남매 다둥이네' 김용희(45·뒷줄 왼쪽 첫번째)씨가 가족이 행복한 새해를 기원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민울(5), 민건(7), 민혁(8), 예나(4), 유나(18), 민걸(1), 엄마 최난희(37)씨, 민준(11)군.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으면 부지런히 일해 돈을 벌고, 아빠 역할을 제대로 하고 싶다"고 다짐했다. 엄마 최씨는 "또 출산계획이 있느냐"는

다소 짓궂은 질문에 "열둘까지 낳고 싶다"고 말했다. 가만 듣고 있던 남편 김씨가 넋뜰웃음을 지었다.

거라 다음은 꼭 쌍둥이를 낳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경찰 2명 조는 틈에...살인 사건 피의자 유치장서 극단적 선택

해남경찰 관리 규정도 어겨

살인 사건 피의자가 경찰서 유치장에서 자해한 후 병원으로 이송 도중 숨졌다. 피의자가 자해할 당시 경찰은 졸고 있었고, 유치장 관리 규정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8일 오전 6시20분경 해남경찰서 유치장 화장실에서 살인 혐의 피의자 김모(59)씨가 쓰러진 채 발견됐다. 김씨

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20여분 만에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전날인 27일 오후 8시30분께 입감된 김씨는 28일 새벽 5시경 화장실로 들어가 입고 있던 잠퍼 하단에 부착된 조임끈으로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CC(폐쇄회로)-TV에는 당시 유치장 관리 경찰 2명이 졸고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경찰청 훈령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에 따르면 살인 등 죄질이 중한 유치인은 정밀하게 위험물 등의 소지 여부를 검사해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당시 근무자 2명을 대기 발령하는 한편 추가로 업무 과실 등을 파악해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살해 혐의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선착장서 차량 추락 사망사고 잇따라

목포 이어 여수 금오도서 40대 여성 숨져

선착장에서 차량 추락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관련 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31일 밤 11시경 여수시 금오도 직포 선착장에서 승용차가 바다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부인

A(48)씨가 출동한 해경구조대에 의해 구조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해경 조사 결과 경사진 길에 주차돼 있던 차량의 기어가 중립으로 놓여져 있어 바다 쪽으로 움직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남편과 함께 새해 일출을 보기 위해 여수

금오도를 찾았으며, 남편은 민박집을 알아 보기 위해 차량에서 내린 상태였다.

이에 앞서 22일 오전 11시50분께에는 목포 북항 선착장에서 B(47)씨가 타고 있던 차량이 바다쪽으로 움직이며 방파제를 넘어 바다로 빠져 B씨가 숨졌다.

지난 8월 7일에도 오후 1시경 해남군 황산면 한 선착장에서 C(69)씨의 승용차가 바다로 빠져 C씨가 숨지는 등 선착장 차량 추락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일용직 노동자 추락 증대

지난달 30일 오전 10시45분경 광주시 광산구 도산동 W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 A(52)씨가 추락했다.

이 사고로 A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광산경찰에 따르면 A씨는 아파트 기계실 지하 1층에서 3m 가량 아래의 정화조 시설로 떨어졌다. A씨는 이날 동료들과 함께 환풍구에 끼인 자갈 등을 제거하기 위해 기계실로 향하던 중 맨홀이 덮여져 있지 않은 정화조 사이로 발을 헛디뎠다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 안전관리자, 동료 작업자들을 상대로 안전장비 착용 여부 등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광주 남구금고 '지정 절차 중단' 가처분 신청 기각

광주 남구가 23년 만에 구금고 운영 사업자를 광주은행에서 국민은행으로 교체한 것과 관련, 광주은행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1일 남구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광주은행이 남구를 상대로 낸 '금고지정절차 속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24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남구가 구금고를 선정한 절차

와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광주은행은 지난달 21일 구금고 선정 과정에서 국민은행이 이사회 승인도 없이 협력사입비 15억원을 제안했는데도 높은 점수를 받는 등 선정 과정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며, 선정 절차를 중단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휴가 나온 사병 만취해 남의 집 잘못 들어갔다 영창 갈 위기



○...연말을 맞아 휴가 나온 사병이 친구들과 술자리에서 만취한 바람에 남의 집에 잘못 들어갔다 영창 갈 위기.

○...1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휴가 중이던 A(20) 일병은 지난달 31일 새벽 1시30분경 광주시 서구 한 오피스텔 B(여·37)씨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현병

에 인계됐다.

○... A씨는 이날 술에 취한 상태로 오피스텔 경비실 앞에 자신의 신발과 소지품을 가지런히 벗어둔 후, 문이 잠기지 않은 B씨의 집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는데, A씨는 경찰조사에서 "술에 취해 아무 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100년 신문 향한 정통지 **광주일보** 창간66주년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20년 경력의 조여사 010-6211-4585"

경,공매 컨설팅

수익형 추천 물건

- ★ [건물]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일반상업지역)
토지:500㎡(151평) 건물:2500㎡(756평)
지상6층 **매매가:45억** 중심상권, 아파트밀집지역
(보증금 10억, 월수입 1천)
- ★ [건물] 광주 동구 금남로5가(중심상업지역)
토지:912.50㎡(276평) 건물:1,477.64㎡(446.9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48억** 대로변, 전시효과최상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1,349㎡(408평) 건물:1,350.03㎡(408.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61억** 8차선대로변
- ★ [건물] 광주 북구 일곡동
토지:7,662.4㎡(2,317.8평) 건물:6,864.61㎡(2076.5평)
지상3층 **매매가:105억** 아파트밀집지역, 복합사우나건물
(보증금 4억3천, 월수입 2천7백)
- ★ [건물] 광주 서구 농성동 (준주거지역)
토지:3,104.6㎡(939.1평) 건물:11,543.18㎡(3491.8평)
지상9층 **매매가:100억** 대로변, 전시효과최상
대로변, 지하철역세권, 전시효과 최상, 수익률최상

병원

- ★ [의료시설] 광주 광산구 신가동
토지:900㎡(272평) 건물:1,900㎡(547평)
지상6층 **매매가:36억**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학동
토지:770㎡(233평) 건물:1,458㎡(441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30억**
아파트 밀집지역, 대로변, 조대병원인근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대인동
토지:514.40㎡(155.6평) 건물:2,143.08㎡(648.2평)
지하층 지상5층 **매매가:32억**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
- ★ [의료시설]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토지:580.40㎡(175.57평) 건물:2,889.86㎡(874.18평)
지하2층 지상6층 **매매가:37억**
상권밀집지역에 위치, 주변 아파트밀집지역

토 지

- ★ [토지] 전남 곡성군 오산면 봉동리
토지:52,504㎡(15882평) **매매가:8억**
임야, 계획관리지역
- ★ [토지] 광주광역시 북구 삼각동
토지:5,324㎡(1611평) **매매가:59억6천만**
투자가치 최상, 도로변 광고효과 좋음
- ★ [토지] 전라남도 여수시 주삼동
토지:9,157㎡(2770평) **매매가:83억1천만**
도로 인프라 최고, 공장이나 물류창고 적합

광주·전남 병원건물(요양, 한방)사우나건물 전문상담 매매·임대 다량보유

대표공인중개사 전민규 062-714-2251